

〈황조가〉(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 관련서사의 서술 의도와 관련하여 —

입 주 탁* · 주 문 경**

I. 서 론

이 글은 『삼국사기』 편찬자가 〈황조가〉 관련서사를 ‘瑠璃明王 3年’조의 역사서술에 포함시킨 의도를 밝힘으로써 〈황조가〉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조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쟁점만 양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가, 창작 시기, 연모 대상, 갈래 성격, 창작 당시의 언어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문제에서는 유리왕을 작가로 보는 견해¹⁾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²⁾가 맞서고 있으며, 유리왕을 작가로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보조연구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국어교육 전공)

1) 權相老, 『朝鮮文學史』(臘寫版, 1947), 24쪽;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15쪽; 趙潤濟, 『朝鮮詩歌史綱』(乙酉文化社, 1954), 76쪽; 金起東, 『國文學概論』(進明文化社, 1980(1955)), 67쪽; 李家源, 『韓國漢文學史』(三和出版社, 1973: 民衆書館, 1961), 29쪽; 千斗鉉, 「黃鳥歌攷」, 『釜山教育大學研究報告』 제1권 제2호(釜山教育大學, 1962), 33쪽; 張鴻在, 「「黃鳥歌」의 戀慕對象」, 『國語國文學 研究論文集』(青丘大學 國語國文學會, 1963), 103~104쪽; 이종출, 「「黃鳥歌」論攷」, 『朝大文學』 제5집(1964: 『한국고시가연구』, 태학사, 1989), 63쪽; 權寧徹, 「黃鳥歌 新研究」, 『國文學研究』 제1집(曉星女大, 1968), 112쪽; 민영대, 「黃鳥歌研究」, 『崇田語文學』 제5집(崇田大, 1976), 118쪽; 金璉永, 「黃鳥歌의 새로운 理解 그 創作의 時機와 文學的 性格」, 『國語國文學』 3(朝鮮大, 1981), 9쪽; 조동일, 『한국문학동사 1』(지식산업사, 1982), 85쪽; 崔斗植, 「黃鳥歌淺考」, 『松郎具然軒博士 華甲紀念論叢』(福社印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창작 시기를 1년 9월~2년 9월 또는 2년 봄,³⁾ 4년 봄,⁴⁾ 4년~10년 또는 5년 봄,⁵⁾ 5년 봄,⁶⁾ 32년⁷⁾ 등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작가와 창작 시기의 추정 여하에 따라 연모 대상도 달리 파악되었다. 초기에는 稚姫 아니면 王妃 宋氏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절 당한 남자의 애절한 구애곡(求愛曲)”이 “고구려 유리왕의 설화 속에 끼여들었다”⁸⁾는 시각에서 치희도 송씨도 아닌 제3의 여성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후 “『黃鳥歌』의 製作은 稚姫에 대한 間接的 보복심에서 이루어진 것”⁹⁾이라고 보아 연모 대상을 松氏로 보는가 하면, “문면으로 보나 사리를 따져 보거나 송씨 아닌 치희”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¹⁰⁾ 나아가 王비 松氏도

刷社, 1985), 659쪽; 鄭武龍, 「『黃鳥歌』研究(I)」, 『青泉康龍權博士 頌壽紀念論叢』(太和出版社, 1986), 329쪽; 黃在淳, 「漢字 到來期의 古典詩歌에 대하여: 〈黃鳥歌〉와 〈公無渡河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79·8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12, 242~244쪽; 尹榮玉, 「琉璃王 類利와 黃鳥歌」, 『韓國古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95), 197쪽.

2) 高晶玉, 『朝鮮民謡研究』(首善社, 1949), 29쪽; 任東權, 『韓國民謡史』(集文堂, 1981 (1964)), 23쪽; 鄭炳昱, 「韓國詩歌文學史 上」, 『韓國文化史大系 V』(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한국고전시가론』(중보판), 신구문화사, 1983(1977)), 53~56쪽; 任東權, 「民謡와 說話의 交涉」, 『人文學研究』第4·5合輯(中央大人文學研究所, 1977. 8), 210쪽; 金承璣, 「黃鳥歌攷」, 『韓國上古文學研究』(第一文化社, 1978;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21쪽; 김학성, 「고대가요와 토템적 사유체계: 〈황조가〉와 그 배경설화의 기호론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제22집(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소, 1988;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16쪽.

3) 權寧徹, 앞의 논문, 112쪽.

4) 李家源, 앞의 책, 21쪽.

5) 이종출, 앞의 책, 63쪽.

6) 全圭泰, 「韓國愛情詩歌攷」, 『自由文學』 통권 69호(1963.5), 229쪽; 민영대, 앞의 논문, 122쪽.

7) 鄭武龍, 앞의 논문, 329쪽.

8) 정병욱, 앞의 책, 56쪽.

9) 張鴻在, 앞의 논문, 105쪽. 이 주장은 黃在淳에 의해 다시 지지되기도 하였다(앞의 논문, 245쪽).

10) 이종출, 앞의 책, 63쪽. 물론 이 주장은 趙潤濟, 앞의 책과 全圭泰, 앞의 논문에 서 먼저 제기된 것인데, 이에 대한 장홍재의 반박이 있자 이종출이 다시 반박하여 지지한 것이다.

雉姬도 아닌 “漠然한 한 사람 卽 配匹감이 될만한 理想的 女人型”¹¹⁾이라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었다. 여기에 “표면상으로는 치희지만 그 내면상으로는 유교국인 漢室과의 친밀한 유대라고 보”아야 한다는 색다른 견해¹²⁾가 덧보태지면서 논의는 한층 확산되었다.

갈래 성격에 대해서도 서정 양식(mode)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나 서사시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수용되고 있으며,¹³⁾ ‘祭儀’에서의 기능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도 서정시로 보는 견해와 서사시로 보는 견해에다 극 시로 보는 견해가 더해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창작 당시의 연

11) 權寧微, 앞의 논문, 110쪽.

12) 鄭武龍, 「「黃鳥歌」研究(II)」, 『國語國文學』 제7집(東亞大 國語國文學科, 1986.12), 53~68쪽.

13) 李明善은 유리왕을 중심에 둔 화회와 치희의 상쟁을 종족간의 대립으로 풀이하여 〈황조가〉는 “種族間의 相爭을 和解시키려다 失敗한 曾長의 嘆聲”(『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167쪽)이라고 풀이하여 〈황조가〉가 서정시가 아닌 서사시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서정시와 서사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듯 하다. 짚은 서정시는 긴 서사시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논점은 〈황조가〉가 서정 시나 서사시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황조가〉 관련 서사와 화회·치희 관련 서사를 서사시 혹은 서사시의 殘影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조가〉를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로 보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能雨도 〈황조가〉를 서사시 혹은 서사시의 혼적으로 볼 것을 제의하고(『古典詩歌論攷』, 宣明文化社, 1966, 26쪽), 金東旭은 “漢族과의 抗爭의 紛爭詩 中에서 남은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國文學史』 개정4판, 日新社, 1988(1976), 35쪽)이라고 하여 이명선의 주장을 지지하였는데, 모두 서정시와 서사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적절하다. 〈황조가〉가 서사시에 삽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서정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4) 정병욱은 ‘성적 제의’(앞의 책, 56쪽)로, 金承璵은 ‘계절제의 혹은 성적 제의에서 불린 서정시가’(앞의 책, 21쪽)로 본 데 비해, 許南春은 ‘제의를 부른 제의요 또는 궂노래’ 혹은 ‘신학적 패턴 속의 인물인 유리왕이 주도하는 ‘再生祭儀를 부른 노래’로 보기도 하고(「황조가의 제의적 성격」, 『성대문학』 24집, 성균관대 국어국 문학과, 1985, 162~163쪽) ‘계절제의에서 불린 집단적 서정가요’로 보기도 하였다(「黃鳥歌 新考察」, 『韓國詩歌研究』 제5집, 韓國詩歌學會, 1999.8, 32쪽; 「古典詩歌의 呪術性과 祭儀性」, 『慕山學報』 10집, 慕山學會, 1998.2: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月印, 1999, 202쪽). 민궁기는 본원희귀의 주기적인 제의(번제)에서 불려진 呪歌(「원시가요 연구(II)」, 『士林語文研究』 제8집, 昌原大 國語國文學會, 1991.2, 43~70쪽)로 보았고, 田寬秀도 “장르가 미분화된 원시시대의 呪歌”(‘제의적 측면에

어에 대해서도 국어로 지은 노래를 한역하였다는 견해¹⁵⁾와 애초부터 한어로 지은 노래라는 견해¹⁶⁾가 대립하고 있다. 국어로 지은 노래로 보는 경우에도 번역 시기를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황조가〉에 대한 논의는 쟁점만 남겼을 뿐, 어느 것 하나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대립적인 만큼 어느 쟁점을 해소하기 어려울 듯이 보인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쟁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도로에 그칠 공산이 그만큼 큰 셈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황조가〉의 합의를 편진하게 이해하는 길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서 본 〈黃鳥歌〉의 성격, 『韓國古典詩歌史』(逸民崔喆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편), 집문당, 1997, 217쪽)로 보았다. 현승환은 “서사 무가 속에 삽입된 삽입 가요”(『黃鳥歌 背景說話의 文化背景의 意味』, 『白鹿論叢』 第1輯, 濟州大, 1999.2, 110쪽)로 보았고, 신연우도 ‘제의적 과정을 노래하는 서사시’로 보았다(『祭儀의 관점에서 본 琉璃王 黃鳥歌 기사의 이해』, 『韓民族語文學』 제41집, 韓民族語文學會, 2002.12, 98쪽). 그리고 엄국현은 “고대사회의 시조추모의례 때 하늘과 땅의 신鬼를 모방한 혼례에서 차첩의 갈등을 소재로 한 희극적인 굿놀이에서 불러진 극적인 양식의 노래”(『古代社會의 儀禮와 歌謡』, 『艸田張宿鎮教授定年紀念國文學論叢』, 세종출판사, 1995, 171~188쪽)로 보았다. 이처럼 양식 문제에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황조가〉의 제의에서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견해들이다.

- 15) 權相老, 앞의 책, 25쪽; 손락범, 「향가」, 『국문학개론』(우리어문화회, 일성당서점, 1949), 124쪽; 金東旭, 앞의 책, 35쪽; 全圭泰, 앞의 논문, 67쪽; 千斗鉉, 앞의 논문, 42~43쪽; 張德順,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0), 80쪽; 金起東, 앞의 책, 67쪽; 趙潤濟, 『韓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63; 探求堂, 1985), 21쪽; 정병욱, 앞의 책, 56쪽; 이종출, 앞의 논문, 63쪽; 任東權, 앞의 책, 23쪽; 權寧徹, 앞의 논문, 90쪽; 민영대, 앞의 논문, 120~121쪽; 鄭東華, 『韓國民謡의 史的研究: 特質과 發達을 中心으로』(一潮閣, 1995(1981)), 166쪽; 金昌龍, 「〈黃鳥歌〉의 底邊」, 『漢城語文學』 제7집(漢城大, 1988.5), 33쪽; 김학성, 「〈황조가〉의 작품 성격」, 『한국고전 시가작품론』(白影鄭炳昱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편, 집문당, 1992, 32쪽); 현종호, 『국어고전시가사연구』(보고사, 1996, 62쪽).
- 16) 李家源, 『韓國漢文學史』(普成文化社, 1979), 21쪽; 文璇奎, 『韓國漢文學: 概論與史』, 二友出版社, 1980, 150쪽; 鄭武龍, 앞의 논문(1986), 329쪽; 李權宰, 「黃鳥歌研究」, 『傳統文化研究』 제6집, 朝鮮大, 1999, 48쪽.

II. 관련서사의 독법과 해석 방향

〈황조가〉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황조가〉의 핵심 정조가 그리움이 아니라 외로움 곧 고독인데, 연모 대상 여부가 논쟁거리로 불거졌다라는 점이다. 그리움은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고독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황조가〉 관련서사에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그리움의 대상을 다양하게 추정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런데 〈황조가〉는 단순히 ‘짝을 잃어버렸거나’이나 ‘짝을 갖지 못하여’ ‘잃어버린 짝’을 그리워하거나 ‘찾고 싶은 짝’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황조가〉의 핵심 정조는 그리움이 아니라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이 비단 어느 시기의 유리왕이 가질 수 있었던 정서가 아니라 유년 시절부터 빨리 잡아도 유리왕 3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황조가〉의 작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실증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이상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황조가〉 관련서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리왕이 〈황조가〉를 불렀다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황조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면 굳이 작가 문제에 집착할 까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장르적 성격 문제는 장르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논쟁거리가 되기 어려운데도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서정시는 서사시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맨 처음 서사시로 보았던 이명선도 부족간의 화해에 실패한 ‘酋長의 歎聲’이라고 하였는바, 〈황조가〉가 ‘탄성’이라면 그것은 서정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황조가〉는 유리왕이 쉬고 있는 나무로 ‘黃鳥飛集’하는 현상을 보고 ‘느낀 바’(感) 있어 부른 노래이므로, 그 과정을 작시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興’의 방식에 의해 지어진 서정시임이 분명하다. 〈황조가〉를 제의의 절차에서 불린 노래로 보는 견해는 갈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더욱이 제의의 절차에서 불린 사실은

어떤 자료로도 증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갈래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며, 제의가 여부는 잘못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 당시의 언어 문제도 그 어떤 자료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

넷째, 〈황조가〉 관련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유리왕 3년’ 조의 역사서술에서 어느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그 근거를 선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왕 3년’ 조의 역사서술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三年 ①秋七月，作離宮於鶴川。] ②[冬十月，王妃松氏薨。] ③[王更娶二女以繼室，一曰禾姬鶴川人之女也，一曰雉姬，漢人之女也。二女爭寵，不相和。王於涼谷造東西二宮，各置之。] ④[後王田於箕山，七日不返，二女爭鬪。禾姬罵雉姬曰“汝漢家婢妾，何無禮之甚乎？”雉姬慙恨亡歸。王聞之，策馬追之，雉姬怒不還。] ⑤[王嘆息樹下，見黃鳥飛集，乃感而歌曰 乃感而歌曰“翩翩黃鳥，雌雄相依。念我之獨，誰其與歸。”](띄어쓰기·각종 부호: 인용자)¹⁷⁾

①~⑤ 가운데 ①②는 유리왕 3년에 일어난 사실이 분명하다. ③도 유리왕 3년에 있었던 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궁궐을 짓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고려 仁宗代에 西京遷都를 꿈꾸며 지은 서경 大華宮의役事が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을 보면 별궁을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수 있다. ①에서와 같은役事라면 7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며, ②에서와 같은役事도 한 달 안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②에 서술된 왕비 송씨의 죽음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③에서 繼室로 맞아들인 和姬의 출신 지역이 ①의 별궁(離宮)을 지은 지역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은 유리왕과 송씨와의 관계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③을 유리왕 3년의 역사로 볼 근거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리왕 3년의 역사로 보지 않을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로써 ⑤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하는 시도는

17) 『三國史記』 卷第13 「高句麗本紀」 第1 瑞璣王。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④ 또한 연월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②보다 ‘後’에 일어났다고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③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 분명할 뿐이다. 만일 ②까지가 유리왕 3년의 일들이거나 ③까지가 유리왕 3년의 일들이라면 ③④ 또는 ④는 유리왕 3년 이후의 사건으로서 유리왕 3년의 역사를 부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⑤의 〈황조가〉 관련서사는 유리왕 3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④에 서술된 치희 亡歸 사건이 유리왕 3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④⑤는 송씨의 죽음으로 인한 유리왕의 고독이 그 이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두 서사는 연대기적인 역사서술에서 ‘유리왕 ○년 ○월’로 서술하기에 적절치 않고 또 ‘3년 7월 鶴川에 異宮을 지었다. 10월 왕비 松氏가 죽었다’는 역사서술과 긴밀한 의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서술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대기적 역사서술에 이와 같이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건이 포함된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리왕 3년 10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이후의 지면에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밝혀 둔다면 연대기적 서술 방식과 모순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嘗’을 ‘치희를 데리러 갖다가 혼자 돌아오던 어느 날’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인용문에서 작가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글자가 ‘歌曰’이다. ‘作歌曰’이라고 하지 않고 ‘歌曰’이라고 한 점을 유리왕 창작설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역시 옳지 않다. 〈황조가〉는 매우 짧은 노래이다. 애초에 韓國語로 지었던 漢語로 지었던 간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된 유리왕이 이렇게 짧은 노래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歌’자는 노래를 부르다는 뜻만 아니라 ‘노래를 짓다,’ ‘노래를 지어 부르다,’ ‘歌體에 맞게 詩를 짓다’ 등으로 새길 수 있는 글자이다.¹⁸⁾ 따라서 ‘作歌曰’이 아니라 ‘歌曰’¹⁹⁾이라는 기록이

18) 『漢語大詞典』 6(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1463쪽 참조.

19) 『三國遺事』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에 ‘奉勅歌呈之’의 ‘歌’는 ‘노래를 짓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왕이 지었음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리왕이 지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유리왕 3년’ 조의 역사서술에서 이 점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황조가〉 관련서사가 ‘유리왕 3년’ 조의 역사서술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데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연월일을 밝히지 않으면서 〈황조가〉 관련서사를 굳이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 포함시킨 이유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조가〉 관련서사가 ‘유리왕 3년’ 조의 역사서술에 포함된 까닭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서술 의도를 밝히는 일은 역사학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한 까닭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논란이 많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리왕 3년’ 조의 서사 전체가 역사서술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유리왕이 〈황조가〉를 부른 시간과 장소는 물론 禾姫와 雜姫를 맞아들인 시기와 둘이 不和하여 중국에 치회가 亡歸한 시기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을 밝혀 놓은 왕비 松氏(多勿侯 松讓의 딸)의 죽음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유리왕 2년 7월에 왕비가 된 송씨가 이듬해 10월에 죽었다는 진술과 유리왕을 이어 즉위한 大武神王의 어머니가 다물국 송양의 딸이라는 진술은 모순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태자로 책봉된 나이가 11세였으므로 대무신왕은 유리왕 23년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왕비 송씨는 유리왕 23년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런 까닭에 〈황조가〉 관련 서사가 해당 역사서술에 잘못 끼어 들었으리라는 추정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유리왕 3년 10월 왕비 송씨가 죽었다’는 진술이 제의 절차에서 ‘모의죽음’의 과정을 서술한 제의의 口述相關物이라는 주장²⁰⁾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유리왕의 셋째 아들인 無恤(→대무신왕)이 왕비로 들여진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은 송씨의 아들이라면 둘 가운데 어느 한 진술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고구려 혹은 인접 지역의 혼인 풍속이나 제도를 고려할 때 대무신왕을

20) 許南春, 앞의 논문(1985).

낳은 송양의 딸은 유리왕 2년에 왕비가 된 송양의 딸과 자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실증 자료로써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제기한 모순을 해결에는 부족하다. 이것이 ‘제의적 관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렇다고 송씨의 죽음이 실제 죽음이 아니라 제의의 한 과정으로서의 모의 죽음이라고 보는 견해를 곧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맹이 고구려의 제천의식이고 이 의식이 10월에 열렸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각을 일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동맹과 같은 제의에서 왕비를 희생으로 삼는 관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모의 죽음이란 부활 혹은 재생을 전제로 하기 마련인데 ‘유리왕 3년’조에는 송씨의 부활이나 재생의 과정이 일체 서술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시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사실로 받아들이는 쪽이나 제의의 口述相關物 혹은 그 殘存物로 받아들이는 쪽이나 확실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 쪽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은 유리왕대의 역사를 서술한 주체가 제의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지적한 모순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삼국사기』 편찬자가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은 유리왕조에 포함된 ‘史論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解明太子의 죽음에 대하여 사관은 ‘父不父, 子不子’ 즉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 논평이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서 모순이나 오류를 찾는 태도에 적잖은 결림돌이 되고 있다. ‘유리왕 3년’조에 서술된 사건들이 오류이거나 시·공간이 모호한 사건들이라면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유리왕 4년 이후 10년까지, 이 사이에도 적잖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 기간의 역사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유리왕 3년’의 역사도 이 시기와 같이 서술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史實’ 자료로서는 자격이 결여된 자료들로써 ‘유리왕 3년’조를 서술하였다면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역사서술을 이해하는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유리왕대 역사의 서술 주체는 ‘유리왕 3년’조의 역사로써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였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갈 때 〈황조가〉 관련서사를 편집하게 이해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III. 유리왕의 ‘孤獨’과 관련서사의 서술 의도

〈황조가〉 관련서사는 역사서술의 한 부분이지만 역사학자가 아닌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 서사에 포함된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밝혀놓지 않아 이로써 再構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 막연한 데 비해, 〈황조가〉는 한국 고대시가의 존재 양상을 추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인식되었던 까닭이다.

그러면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리왕대의 역사서술 특히 ‘유리왕 3년’조까지의 역사서술에서 서술 주체가 드러내고자 한 의도를 밝힐 수는 없을까? 그 의도는 역사서술에서 암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서술자는 군데군데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황조가〉의 핵심 정조

〈황조가〉에 핵심적인 정조는 그리움인가 외로움 곧 고독인가? ‘연모 대상’이 논점으로 불거진 것을 보면 〈황조가〉 논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움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조가〉에 핵심적인 정조는 그리움이 아니라 고독 곧 유리왕의 고독이다. 그러므로 서술자의 의도는 ‘왜 유리왕의 고독을 강조하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4언 4구 16자로 구성된 이 노래에서 핵심적인 정조는 시적 주인공인 ‘나(我)’의 ‘외로움’ 즉 고독이다. ‘我之獨’의 ‘之’는 강조에 따른 도치를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獨我’의 ‘獨’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하고 도치를 표시하는 글자를 삽입한 것이다. 따라서 ‘我之獨’은 ‘외롭디 외로운 나’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옮기고 보면 〈황조가〉는 ‘고독’한 존재로서의 화자의 처지가 강조되어 있는 셈이다.

고독은 유리왕이 노래를 짓거나 혹은 부르는 행위의 ‘근원적’ 계기이다. 물론 ‘나’로 하여금 ‘고독’을 노래로 표현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내가 쉬고 있는 나무에 황조들이 날아드는 현상’을 목격한 데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누구나 그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노래에서의 ‘나’는 그 현상을 목격하기 이전에도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나무에 황조가 날아드는 현상’을 목격한 데서 마련되었지만 ‘나’는 그 이전부터 ‘고독’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작가 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해당 서사 문맥에서 ‘나’가 곧 ‘유리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왕위에 즉위하기 이전의 ‘유리태자’나 태자로 책봉되기 이전의 ‘유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동일인이므로 〈황조가〉는 외롭디 외로운 존재로서의 유리왕의 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노래로 볼 수 있다. 그의 고독은 비단 〈황조가〉뿐 아니라 유리왕 대 역사서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유리왕 3년’조까지의 역사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리왕은 왜 이토록 고독한 존재였을까? 〈황조가〉에 나타난 고독의 계기 혹은 원인은 ‘유리왕 3년’조에 포함된 사건들의 선후 관계나 상호 연관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노래를 지은 시기와 관련된 ‘연모 대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왕비 송씨에 대한 사랑이 깊어 그녀의 죽음이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도 하고, 송씨가 죽은 뒤에 맞아들인 두 여인, 禾姬와 稷姬의 불화와 이어

자는 치희의 亡歸, 뒤이어 쫓아갔으나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독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도 하였으며, 결혼 적령기에 들어섰는데도 짹을 찾지 못한 상황이 고독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도 하였다. 어느 추정이나 일리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성장기부터 왕위에 오른 뒤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생에서 재위 3년까지 유리왕은 고독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황조가〉는 ‘고독한 존재’로서의 유리왕의 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왕 3년까지의 역사서술에서 서술 주체의 초점도 ‘고독한 존재’로서의 유리왕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맞춰져 있다.

2. 유리왕의 됨됨이와 고독의 서술 양상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서 찾을 수 있는 유리왕의 인물 됨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不德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일은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 함축된 서술 의도를 파악하는 길이기도 하다.

유리의 어머니 禮氏의 말에서 우리는 아버지 주몽이 東夫餘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망명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리는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은 동부여에서 나고 자랐다. 따라서 그의 이런 시절은 단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점뿐 아니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리라는 점에서도 고독하였을 것이다. 날아가는 참새를 잡으려다 동네 아낙의 물동이를 깨뜨린 사건은 유리로 하여금 고독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아버지의 유물을 가지고 친자 확인의 길을 나선 유리를 따른 무리는 셋이다. 이것은 친자 확인이 이루어지고 태자로 책봉되자 망명한 沸流와 溫祚를 따르는 무리의 규모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비류와 온조는 동명성왕의 開國의 역사를 함께 한 아들이다. 따라서 동명성왕을 도와 고구려의 개국을 도모한 많은 토착 세력들이 ‘동명성왕—비류·온조’를 중심으로 결속하였으

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에 비해 유리는 개국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다. 오로지 ‘元子’라는 이유 때문에 고구려로 망명한 직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굽기야 동명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뿐이다.

유리는 또 아버지를 찾자마자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태자로 책봉된 지 5개월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비류와 온조, 그리고 두 왕자를 추종하는 토착 세력의 망명과 아버지 동명성왕의 죽음은 유리의 고독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을 수 있다. 일시적인 해소가 오히려 고독을 한층 더 심화시킨 셈이다. 유리가 혼인을 한 것은 왕위에 오르고 난 후, 정확하게는 유리 왕 2년 7월이다. 동명성왕이 19년 동안 재위하였으므로 유리왕의 나이는 스무 살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스무 살이 되어도 혼인을 못한 것도 고독을 느끼게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도 혼인을 못한 일은 고독을 한층 더 강화했을 것이다.

유리왕이 다물후 송양의 딸과 혼인한 사실은 유리왕의 고독한 처지가 최고 통치자로서는 매우 심각하였음을 시사한다. 동명성왕도 그러하였듯이 유리왕도 이주해온 인물로서 이주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착 세력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부왕인 동명성왕은 그런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던 까닭에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부왕의 지지 기반은 비류·온조의 망명으로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리왕이 다물후 송양의 딸과 혼인한 사실이 바로 그러한 정황을 가늠하게 한다.

다물국은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운 뒤에 처음으로 통합한 작은 나라이다. 즉 동명성왕 2년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투항해 옴에 따라 고구려에서 그 나라를 多勿都라 이름하고 송양을 다물후로 책봉하였다. 따라서 다물후의 고구려 내의 위상은 동명성왕을 보필하여 개국에 기여한 공신들보다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다물후 송양의 입장에서 볼 때 비류와 온조의 망명 사건은 자신과 자기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송양이 고구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리라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다물후 송양의 딸을 왕비로 들인

사건에서 유리왕이 고구려의 개국에 적극 기여한 토착 세력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리왕이 다물후 송양의 딸과 혼인한 지 석 달 뒤인 2년 9월에, 망명했던 온조는 백제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 사실을 유리왕 2년 조에 함께 실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온조는 동명성왕의 아들이므로 망명한 아들의 이후 행적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을 대비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주해 간 인물이 아주한 지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토착 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온조가 백제를 세운 것은 바로 그러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百濟本紀」의 온조왕에 대한 역사서술은 그가 그러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유리왕은 토착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물후만이 유일한 지지 세력으로 부상할 뿐이다. 다물국의 권력 위상이 높아질수록 토착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법이다.

그래도 혼인을 매개로 다물국을 왕실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유리왕의 고독은 일정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왕비 송씨는 유리왕과 혼인한 지 1년 3개월만에 죽었다. 이 죽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써 유리왕의 고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씨가 죽기 석 달 전에 鶴川에다 離宮(별궁)을 지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만하다. 골천은 송씨가 죽고 난 후 다시 맞아들인 두 여인 가운데 하나인 和姪의 출신 지역이다. 화희 집안은 어쩌면 고구려 개국에 적극 기여한 토착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지 모른다. 그 집안이 왕실과의 혼인을 의도하였다면 송씨 집안과의 사이에는 적잖은 대립과 알력이 존재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과 알력은 유리왕의 고독을 한층 가중 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유리왕이 〈황조가〉를 부르는 계기를 마련해준 「黃鳥飛集」의 현상은 황조들이 나무를 보금자리로 알고 찾아들어 서로 의지가지가 되어 정답게 지내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는데, 유리왕은 그런 나무와 같은 보금자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유리왕이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 것은 지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결국 두 여인의 불화로 실패하고 만다. 화희와 치희의 대결과 치희의 亡歸는 토착 세력의 지지 기반을 굳건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략적인 혼인을 통한 왕실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유리왕은 고독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리왕의 고독은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유리왕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의 서술 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물음이다.

3. 고독의 의미와 서술 의도

유리왕은 왜 고독한가? 그의 고독은 胎生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생적인 고독은 성장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다. 특히나 유리가 부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국왕으로 등극한 만큼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도 유리왕의 고독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에 포함된 다음의 ‘史論’에서 의문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논한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에는 좌우에서 떨어지지 않고 문왕이 세자가 되었을 때와 같이 효를 다하여야 한다. 해명은 다른 도읍(舊都 卒本)에 있으면서 용맹하다는 소문을 좋아하였으니 죄를 얻은 것이 마땅하다. 또 들으니 『傳』(左傳)에 사랑하는 아들은 바른 방도로 가르치되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왕은 처음부터 그를 가르친 일도 없는데도 그 아들의 악행이 이루어지자 몹시도 미워하여 죽이고 말았으니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은 아들답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²¹⁾

21) 論曰：孝子之事親也，當不離左右，以致孝若文王之爲世子。解明在於別都，以好勇聞，其於得罪也，宜矣。又聞之傳曰 爰子教之以義方，弗納於邪。今王始未嘗教之，及其惡成，疾之已甚，殺之而後已，可謂父不父子不子矣。金富軾 撰，『三國史記』卷13「高句麗本紀」第1 琉璃明王 27年。

해명태자가 자결한 사건 다음에 실려 있는 사관의 논평이다. 해명태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해명태자는 그렇지 않았다.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관은 아들이 아들답지 못한 까닭을 아버지인 유리왕에게서 찾고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답게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였는바, 이것이 해명태자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여 끝내 아들을 죽게 하였다면 그 아버지는 '不德'한 인물이다. 이 논평에서 아버지다움과 아들다움의 모범을 문왕의 사적에서 찾고 있는 점은 사관이 실제로 유리왕을 不德한 인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文王과 武王, 동명성왕과 유리왕은 서로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 아주해온 인물로서 아주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명태자 또한 문왕이나 부왕인 유리왕처럼 아주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문왕은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小心'하게 천하 인민들이 周나라 왕실의 지지 세력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 무왕이 천하의 주인인 殷나라 왕실을 무력으로 정복하여도 천하가 주나라 왕실을 지지하였던 것은 바로 부왕인 문왕의 德治 때문이었다.

그에 반해 유리왕은 부덕한 인물이다. 유리왕이 태자가 되고 곧이어 동명성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러진 칼로써 친자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단지 元子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자리나 그것을 계승하는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왕위에 오르기 이전 유리는 참새 한 마리도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던 인물이다.²²⁾ 그런 인물이 부왕의 뒤를 이어

22) 유리왕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삼국사기』의 서술 내용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따지는 일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글은 각각의 서술자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위에 올랐다면 무엇보다 최고 통치자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뒤에 유리왕은 사냥만을 일삼은 인물로 그려져 있다. 송씨를 왕비로 맞아들인 지 두 달만에 사냥을 나갔고, 송씨가 죽고 새로 맞아들인 두 여인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分居만 하게 하고 사냥을 나가 이례씩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부왕인 동명성 왕만큼 武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인데도 武勇을 과시하기만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여인들의 불화를 조정할 만한 능력도 부족하여 동과 서에 따로 궁을 만들어 살게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적들에서 우리는 유리왕이 문왕과는 사뭇 대조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詩經』 「國風」 ‘周南’편의 〈關雎〉²³⁾는 문왕의 인물됨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래이다. 물론 이 노래는 작가, 구성(分章)과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文王과 太姒가 덕이 있고 또 서로 좋은 배필이 될 수 있어 배필이 되는 과정을 즐겁게 노래한 작품으로 읽을 때, 〈관저〉는 이 주한 지배 세력과 토착 세력과의 화합과 결속을 토착민의 입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왕은 아주민인 데 비해, 물가에서 나물 뜯는 여인네들은 토착민의 상징이다. 아주민이 아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토착민들과의 화합과 결속이다. 〈관저〉는 그 화합과 결속의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德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노래이다.

문왕에 비하면 유리왕은 아주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될 만한 덕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유리왕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문왕을 생각한 것을 보면 서술 주체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유리왕뿐 아니라 새로 맞아들인 두 여인 또한 婦德이 결여된 인물이다. 『삼국사기』의 잠재적

23) 〈관저〉는 다음과 같다.

關關雎鳩，在河之州。窈窕淑女，君子好逑。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輾轉反側。

參差荇菜，左右採之。窈窕淑女，琴瑟友之。參差荇菜，左右芼之。窈窕淑女，鐘鼓樂之。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國學에서 儒家의 경전을 배웠을 것이며, 문왕의 사적을 훤히 째뚫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⁴⁾ 그렇다면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을 읽고 〈황조가〉를 읽을 때에는 문왕의 역사와 〈관저〉를 떠올리며 읽을 것이다. 그렇게 읽을 때 유리왕이란 인물은 문왕에 비해 덕이 부족하고 또 덕을 쌓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그리하여 최고 통치자로서의 내적 자질을 결여 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최고 통치자에게는 무엇보다 덕을 갖추고 덕을 쌓으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유리왕이 〈황조가〉를 부르게 된 공간이 나무 아래라는 점도 그래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유리왕이 쉬고 있는 나무는 유리왕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조들에게 보금자리가 된다. 이 보금자리에서 새들은 암수가 서로 의지가지가 되어 주며 정답게 놀고 있다. 그 나무는 곧 '덕'(樹德)을 갖추고 있는 나무인 셈이다.²⁵⁾ 그에 비하면 유리왕은 덕을 갖춘 나무와는 대조적이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쉬는 나무에 황조들이 날아드는 것을 보고 깨달은 셈인데, 그래서 부른 것이 〈황조가〉이다.²⁶⁾ 〈관저〉가 덕이 있는 문왕 혹은 문왕과 태사의 덕을 칭송하는 목소리를 담아낸 노래라면, 〈황조가〉는 토착 세력들이 서로 의지가지가 되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고 한탄하는 유리왕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낸 노래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황조가〉를 읽는 방법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황조가〉에 등장하는 암놈(雌)과 수놈(雄)의 황조는 '유리왕의 짹'과 '유리왕'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어왔다.

24) 국학에서 배우는 필수 교과목 가운데 武學을 제외하면 〈翰林別曲〉의 제2장 3행에 모두 열거되어 있다. 즉, 毛詩, 尚書, 周易, 春秋, 周禮, 戴禮이 그것이다. 『高麗史』卷74 志 28 選舉 2 學校 참조. 그리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역사는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역사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당대인들에게 자국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고 있는 바이다.

25) 五行思想에서 나무(木)가 仁義禮智信 가운데 '仁'에 대응한다는 점도 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6) 〈관저〉에 대비하여 읽을 수 있게 제목을 불인다면 〈翩翩〉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리하여 〈황조가〉는 '짝을 잃거나 짹을 구하지 못한 처지'에서 '짝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읽었던 것이다. 이렇게 읽다보니 그리움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조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최소한 유리왕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는 점과 황조들이 그 나무로 날아모여 정답게 놀고 있다는 점 등 관련서사의 이야기 문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리왕은 자신을 무엇에 견주어 보았을까?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유리왕은 자신의 처지를 나무와 견주어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나무가 황조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들어'(歸巢) 서로 다정하게 노는 공간인 데 반해 자신에게는 누구도 황조들처럼 붙좇지(歸附, 歸依) 않음을 노래로 표현하였다는 말이다. 〈황조가〉의 이야기 문맥을 제공하는 기록에서 '나무 아래'(樹下)는 그래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유리왕의 '짝'과 유리왕을 황조 암놈과 수놈의 관계에 대응시켜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무 아래'(樹下)는 불필요한 서술이 된다.

이와 같이 관련서사를 이해할 때 〈황조가〉 번역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황조가〉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번역 주체의 〈황조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 그런 까닭에 〈황조가〉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지가 않았다.

- ① 나드는 곳고리 새는/암수 서로 부니르났다/하오한 나여/놀과 한데 너리외정
인보²⁷⁾
- ② 편편 나는 꾀꼬리는/자옹이 노니는데/외로운 이내 몸은/뉘와곰 돌아갈꼬이
병기²⁸⁾
- ③ 꾀꼬리는 오락가락/암 수 서로 짹지어 놀고 있는데/외로울사 이봄이야/(나
의사랑 松姫를 잊고, 그나마 두 繼室마저 나의 뜻에서 어긋나니 진실로 이
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며) 살아가잔 말고~~장홍~~
재²⁹⁾

27) 鄭寅普, 『朝鮮語文研究』 제1집(延專, 1931)의 번역을 千斗鉉, 앞의 논문, 46쪽에서
재인용.

28) 白鐵·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3, 40~44쪽.

29) 張鴻在, 앞의 논문, 105쪽.

- ④ 꾀꼬리 오락가락/쌍쌍이 즐기는데/외로운 이내몸은/뉘와같이 돌아가리[임동
권]³⁰⁾
- ⑤ 펄펄 나는 저 꾀꼴새는/수놈과 암놈이 저리 정다운데/나의 외로움을 생각함
이여/그 뉘와곰 함께 갈거내[정병육]³¹⁾
- ⑥ 편편 꾀꼬리는/암놈 수놈 노니는데/외로울사 이내몸은/뉘와 함께 돌아갈꼬
[김동욱]³²⁾
- ⑦ 훨훨 나는 꾀꼬리는/ 암 수 서로 의지하는데/나의 고독 생각하니/그 누구에
게 의지할까[김봉영]³³⁾
- ⑧ 펄펄 나는 꾀꼬리/암수 서로 어울리는데,/생각하니 나는야 외롭구나./놀과
함께 돌아가리[조동일]³⁴⁾
- ⑨ 오락가락하는 꾀꼬리는/암수가 서로 쫓는데/외로운 이내 몸은/누구와 더불
어 살까[김승찬 · 권두환]³⁵⁾
- ⑩ 가벼이 나니는 꾀꼬리여/암수놈이 어우러져 정답구나/내 몸의 외로움 생각
노니/그 뉘와 더불어 돌아갈거내[김홍규]³⁶⁾
- ⑪ 펄펄나는 저 꾀꼬리/짝을 지어 즐기는데/외로울사 이내몸/놀과 함께 돌아가
리[오현종호]³⁷⁾
- ⑫ 퍼득퍼득 꾀꼬리/암수 서로 즐겁네/외로운 이 내 몸은/뉘와 함께 돌아갈꼬
[민병수]³⁸⁾

‘翩翩’은 새들이 날개짓을 빠르게 하며 나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새들은 서로 짹 짓기를 하면서 정답게 놀 때 날개짓을 빠르게 한다. 그런데 ‘펄펄’이나 ‘훨훨’은 새가 높이 자연스레 나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므로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또 ‘오락가락’이나 ‘가벼이 나니는’과 같은 번역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물론 의태어이기 때문에 ‘翩翩’을 우리말로 옮기지 않은 것도 일 리가 없지 않지만 이 의태어가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기

30) 任東權, 앞의 책, 22쪽.

31) 정병육, 앞의 책, 56쪽.

32) 金東旭, 앞의 책, 35쪽.

33) 金琫永, 앞의 논문, 8쪽.

34) 조동일, 앞의 책, 84~85쪽.

35) 金承燦 · 權斗煥, 『古典詩歌論』(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7), 16쪽.

36)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86, 37쪽.

37) 현종호, 앞의 책, 62쪽.

38)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58쪽.

때문에 적절한 말을 현대 국어에서 찾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번 역 가운데 ‘翩翩’을 그 뜻에 가장 정확하게 옮기고자 한 것은 ⑫의 ‘펴득펴득’이다. 하지만 ‘펴득펴득’의 ‘펴득’은 ‘펴들거리다’의 어근인데, 이 말은 새들이 추위에 떨거나 몸에 물기를 떨어 낼 때 날개짓을 하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국어사전에서 황조와 같은 작은 새들이 빠르게 또 가볍게 날개짓과 꼬리짓을 하는 모양을 형용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드닥’ 또는 ‘파드닥 파드닥’이다. 따라서 ‘편편’은 ‘파드닥파드닥’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黃鳥’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꾀꼬리’ 또는 ‘꾀풀새’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青鳥’나 ‘黑鳥’와 같은 새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새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옮기더라도 의미 파악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³⁹⁾ 하지만 ‘황조’를 꾩꼬리로 옮길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다. 유리왕이 나무 아래에서 본 것은 ‘황조’가 ‘飛集’하는 모습인데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나무에 모이는 것은 ‘꾀꼬리’의 습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러한 습성은 참새와 같이 꾩꼬리보다 더 작은 새들의 습성으로 알려진 것이다.

‘黃鳥’가 참새와 같은 매우 작은 새를 가리키고 또 통치 집단의 ‘德’과 연관되어 있는 사례는 다음 노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黃鳥于飛，集于灌木(「周南」, 〈葛覃〉)

② 黃鳥黃鳥，無集于桑，無啄我梁。此邦之人，不可與明，言旋言歸，復我諸兄(「祈父」, 〈黃鳥〉)

①의 〈갈담〉은 칙이 덩굴지고 새들이 灌木을 보금자리로 알고 날아드는 현상을 서술한(賦)한 노래인데, 이러한 현상이 ‘后妃의 두터운 德’에서 비롯함을 말하고 있다. ②의 황조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전전하며 定着할 곳

39) 이 논문을 성심여문학회 주최 학술대회(2004.11.13)에서 발표할 때 ‘황조’를 ‘꾀꼬리들’로 옮겼었다. 그런데 정종진(서강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꾀꼬리들’보다는 ‘참새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해 주었다. 그리하여 ‘참새들’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이하에 덧붙인다. 다만,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 ‘황조(黃鳥)’로 번역해 둔다.

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 왕들의 不德함에 있음을 풍자한 노래이다. 두 노래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황조는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참새들의 ‘安集’ 여부는 통치 집단의 덕의 유무에 따라 좌우됨을 시사하고 있다. 〈황조가〉의 황조들이 암수 서로 정답게 놀고 있다는 것은 곧 나무가 그것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의 덕은 한층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황조가〉의 황조도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을 가진 참새와 같은 새들로 보는 것이 텍스트 내·외적 문맥에 한층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⁴⁰⁾

‘念我之獨’의 ‘我之獨’은 ‘獨我’를 강조한 말이므로 ‘외로운 나’ 또는 ‘외롭디 외로운 나’로 읊길 수 있지만, ‘念’을 읊기는 일은 쉽지 않다. ‘虛辭’로 보고 새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⁴¹⁾ 뜻글자로 새길 수도 있다. 뜻글자로 새길 때에는 ‘생각하다’는 뜻으로만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물’이라는 數詞로 새길 수도 있다.⁴²⁾ 유리왕이 〈황조가〉를 부른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스무 살 남짓한 나이에 불렀다는 것은 사실이다.⁴³⁾ 그렇다면 ‘念’은 ‘我’를 수식하는 말이 된다. 이 경우 그 무렵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부왕 동명성왕이나 ‘君子’로 일컬어질 만큼의 덕을 갖추었던 문왕과 대비하여 읽으면 ‘念’이 ‘獨我’를 한층 더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새기는 데 널리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새김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念’을 ⑤⑦⑨⑩에서와 같이 ‘생각하다’는 뜻으로 새길 때에는 그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念’을 ‘생각하다’로 새겨 읽을 때 우리말의 통사 구조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지 나

40) 「魯頌」의 〈泮水〉에는 노나라 왕이泮宮에 있으면서 자신이 덕이 있어 새들이 찾이와 자신의 은혜를 입어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功德을 찬양하게 한 것이다.

41) *Loc. cit.*

42) 가령 ‘念五日’은 25일을 가리킨다. 『漢語大詞典』 7(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421쪽 참조.

43) 〈관저〉에 형상화된 문왕이 태자시절의 문왕이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示唆的이다.

마지 번역에서는 모두 虛辭로 처리하였다. 사실 번역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⑤⑦⑨⑩ 가운데 ⑨를 제외하면 글 자체가 우리말의 통사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⑨는 제3구와 제4구를 두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분리 시킴으로써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려 한 듯한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念’자의 새김이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念’을 ‘생각하다’는 뜻으로 새기되, 주체를 ‘我’로 보지 않고 ‘誰’로 보면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德不孤’⁴⁴⁾란 말이 있듯이 유리왕의 고독이 ‘不德’의 所致이고, 또 그 자신이 그것을 새들이 나무에 날아드는 현상을 목격하는 중에 깨달았다면 이 구절은 자신의 不德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 구절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읽을 때 ‘念’의 주체는 유리왕 자신이기도 하지만 황조들에 대응되는 존재, 곧 토착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念我之獨’은 '(나무와 달리 不德해서) 외롭디 외로운 나를 생각한다면'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誰其與歸’와 붙여 읽을 때 ‘외롭디 외로운 나는’ 정도로 옮겨도 의미에 큰 차이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誰其與歸’의 ‘其’는 의문사 뒤에 붙어 의문사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與歸’의 ‘歸’은 ‘女子出嫁’나 ‘返回’·‘歸還’의 뜻으로 새길 수도 있고, ‘歸附’의 뜻으로 새길 수도 있다. 그런데 ‘황조들이 나무에 날아들어 雌雄相依하는 형국’과 대비하여 읽을 때 ‘歸依’, ‘歸附’나 ‘歸居’, ‘歸巢’의 ‘歸’의 뜻으로 새기는 것이 적절하다.⁴⁵⁾ 황조가 나무에 날아들어 모이는 것은 나무가 그들의 둥지요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왕은 토착 세력들이 머무는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왕비 송씨가 머물 수 있는 둥지도 되지 못하였고, 치희와 화희가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둥지도 보금자리도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나무가 황조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들어 의지 가지를 삼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부녀한 자신을 ‘그 누가 붙좇으

44) 『論語』「里仁」에 “德不孤，必有鄰。”이라는 孔子의 말이 있다. 이 말에 대해 朱熹는 “隣，猶親也。德不孤立，必以類應。故有德者，必有其類從之，如居之有鄰也。”라고 註釋하였으며，物茂卿은 ‘鄰’을 ‘臣’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漢文大系1：論語集說』(東京：富山房) 卷2 「里仁」 第4 참조。

45) ‘歸’의 여러 가지 새김에 대해서는 『漢語大詞典』 5(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367쪽 참조。

랴?’ 하는 한탄 섞인 말로 읊길 수 있다. 유리왕과의 ‘혼인’은 ‘불죽음’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위의 일종인 만큼 ‘함께 살아가다,’ ‘시집오다,’ ‘결혼하다’ 등으로 읊겨도 그리 문제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황조의 암놈과 수놈의 관계를 유리왕의 ‘짝’과 유리왕의 관계로만 파악하게 할 것이므로 ‘불죽다’로 반역하는 것보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황조가〉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파드닥파드닥 황조(黃鳥)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롭디 외로운 나는

그 누가 불죽으랴?

〈황조가〉는 〈관저〉에 그려진 문왕과는 대조적인 인물 곧 부덕한 인물이다. 덕은 최고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유리왕은 덕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덕을 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인물이다. 〈황조가〉는 그런 유리왕의 됨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래인 동시에 유리왕이 자신이 부덕한 인물임을 알고 있는데도 積德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부덕이 유리왕의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황조가〉를 『삼국사기』 ‘유리왕’ 대의 역사에 포함시켜 서술한 의도가 ‘德不孤, 必有隣’의 유가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유리왕의 행적을 褒貶함으로써 최고 통치자가 ‘德’을 갖추는 일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황조가〉는 이별의 노래나 구애의 노래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황조가〉에 등장하는 황조의 수놈과 암놈의 관계를 노래를 부른 주체인 유리왕과 ‘짝이 될 만하거나 짝이었던 여인’의 관계에 대응시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는 유리왕대의 역사를 서술한 주체의 서술 의도를 천착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적절치 않음을 확인하였다. 유

리왕의 태생에서부터 재위 3년까지의 역사서술에서 서술 주체의 관심의 초점이 최고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元子’라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德’이라는 내적 조건임을 말하는 데 놓여 있으며, 따라서 〈황조가〉 관련서사를 ‘유리왕 3년’조에 포함시킨 데는 덕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토착 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던, 그리하여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유리왕의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後王들이 거울로 삼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황조가〉는 유리왕의 됨됨이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데 매우 적절한 노래인 셈이다.

물론 『삼국사기』에 서술된 유리왕의 됨됨이는 〈東明王篇〉에 서술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를테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유리가 또 하나의 화살을 쏘아 뚫어진 독 구멍을 막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유리에 대한 이규보의 시각이 김부식의 시각과 사뭇 달랐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김부식이 유리왕의 됨됨이를 이규보와 달리 본 까닭은 현실 문맥과 관련지어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 작업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다만 『삼국사기』 편찬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찬 당대의 주요한 사건 두 가지를 적시해 둘으로써 후속 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稱帝建元과 征金의 이론이 『삼국사기』 편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 의해 잠재워졌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德의 유무로 인종 이후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毅宗을 지지하는 세력과 大寧侯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외적,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종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帝王이 되는 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황조가〉 관련서사와 유리왕대의 역사서술은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反例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13쪽.
- 梁柱東, 『古歌研究』(중판), 一潮閣, 1993(1942, 1965).
- 權相老, 『朝鮮文學史』(贊寫版), 1947, 23~25쪽.
- 李明善,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16~17쪽.
- 孫洛範, 『鄉歌』, 『國文學概論』(우리어문화회), 一成堂書店, 1949, 115~157쪽.
- 高晶玉, 『朝鮮民謡研究』, 首善社, 1949, 29쪽.
-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乙酉文化社, 1954, 76~77쪽.
- 金起東, 『國文學概論』, 進明文化社, 1980(1955), 67쪽.
-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76~80쪽.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三和出版社, 1973(民衆書館, 1961, 普成文化社, 1979).
- 千斗鉉, 「黃鳥歌攷」, 『釜山教育大學研究報告』第1卷 第2號, 釜山教育大學, 1962, 1~47쪽.
- 趙潤濟,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探求堂, 1985, 20~21쪽.
- 張鴻在, 「『黃鳥歌』의 戀慕對象」, 『國語國文學 研究論文集』, 青丘大學 國語國文學會, 1963, 98~108쪽.
- 全圭泰, 「韓國愛情詩歌攷」, 『自由文學』通卷 69號, 1963.5, 204~213쪽.
- 李鍾出, 「『黃鳥歌』論攷」, 『朝大文學』 제5집, 1964: 『한국고시가연구』, 泰學社, 1989, 43~63쪽.
- 任東權, 『韓國民謡史』, 集文堂, 1981(1964), 22~26쪽.
- 李能雨, 『古典詩歌論攷』, 宣明文化社, 1966, 26쪽.
- 鄭炳昱, 「韓國詩歌文學史 上」,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770~775쪽: 『한국고전시가론』(중보판), 신구문화사, 1983(1977), 51~57쪽.
- 權寧徹, 「黃鳥歌 新研究」, 『國文學研究』第1輯, 曉星女大, 1968, 81~118쪽.
- 白鐵·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3, 40~44쪽.
- 金東旭, 『國文學史』(개정4판), 日新社, 1988(1976).
- 민영대, 「黃鳥歌研究」, 『崇田語文學』 제5집, 崇田大, 1976, 109~129쪽.
- 任東權, 「民謡와 說話의 交涉」, 『人文學研究』 第4·5合輯, 中央大人文學研究所, 1977.8, 208~219쪽.
- 金承璫, 「黃鳥歌攷」, 『韓國上古文學研究』, 第一文化社, 1978, 7~22쪽: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8~22쪽.

- 金學成, 『韓國古典詩歌의 研究』, 圓光大出版局, 1985(1980), 67~71쪽.
- 文璇奎, 『韓國漢文學: 概論과 史』, 二友出版社, 1980, 148~150쪽.
- 金璉永, 「黃鳥歌의 새로운 理解: 그 創作의 時機와 文學의 性格」, 『國語國文學』 3, 朝鮮大, 1981, 7~10쪽.
- 鄭東華, 『韓國民謡의 史의 研究: 特質과 發達을 中心으로』, 一潮閣, 1995(1981), 164~166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知識產業社, 1982, 84~85쪽.
- 許南春, 「黃鳥歌의 祭儀의 性格(1)」, 『成大文學』 24輯,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85.12, 153~쪽.
- 崔斗植, 「黃鳥歌淺考」, 『松郎 具然軒博士 華甲紀念論叢』, 福社印刷社, 1985, 657~674쪽.
- 全圭泰, 『韓國文學의 理解』, 正音文化社, 1986, 229쪽.
- 鄭武龍, 「「黃鳥歌」研究(I)」, 『青泉康龍權博士頌壽紀念論叢』, 太和出版社, 1986, 309~329쪽.
- 鄭武龍, 「「黃鳥歌」研究(II)」, 『國語國文學』 제7집, 東亞大 國語國文學科, 1986. 12, 53~68쪽.
- 李庚秀, 「黃鳥歌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張德順 외), 集文堂, 1986, 99~107쪽.
-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86, 쪽.
- 金承燦·權斗煥, 『古典詩歌論』, 韓國放送大學出版部, 1987, 16쪽.
- 梁光錫, 「黃鳥歌辨異考」, 『國語國文學論叢』(西江 李廷卓教授 華甲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刊行委員會 편), 螢雪出版社, 1987.12: 『誠信漢文學』 제2집, 誠信女大 漢文學會, 1990.12, 22~42쪽.
- 朴焌圭, 「〈黃鳥歌〉의 理解」, 『陶南學報』 10輯, 陶南學會, 1987.12, 97~100쪽.
- 박병숙, 「황조가의 신연구」, 『금화논총』 제1집, 경기대 대학원, 1988.2.
- 김학성, 「고대가요와 토템적 사유체계: 〈황조가〉와 그 배경설화의 기호론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제22집, 成均館大大東文化研究所, 1988.4: 『한국고 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11~35쪽.
- 金昌龍, 「〈黃鳥歌〉의 底邊」, 『漢城語文學』 제7집, 漢城大, 1988.5, 1~33쪽.
- 朴晟義, 「高句麗歌謡」, 『韓國歌謡文學論과 史』, 集文堂, 1989, 29~31쪽.
- 申東壹, 「黃鳥歌의 背景說話 : 琉璃王과 王妃 松氏 그리고 그 아들 大武神王」, 『陸士論文集』 第39輯, 陸軍士官學校, 1990.12, 7~21쪽.

- 민궁기, 「원시가요 연구(II)」, 『士林語文研究』 제8집, 昌原大 國語國文學會, 1991. 2, 41~83쪽.
- 김학성, 「〈황조가〉의 작품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편), 집문당, 1992, 25~32쪽.
- 黃在淳, 「漢字 到來期의 古典詩歌에 대하여: 〈黃鳥歌〉와 〈公無渡河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79·8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12, 241~253쪽.
- 김창룡, 「고구려의 문학(I): 〈黃鳥歌〉·〈與隋將于仲文詩〉」, 『애산학보』 14, 애산학회, 1993, 81~104쪽.
- 윤영옥, 「유리왕과 황조가」, 『한국의 고시가』, 문창사, 1995, 33~47쪽.
- 尹榮玉, 「琉璃王 類利와 黃鳥歌」, 『韓國古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95, 193~205쪽.
- 엄국현, 「古代社會의 儀禮와 歌謠」, 『艸田張培鎭教授定年紀念國文學論叢』, 세종출판사, 1995, 171~188쪽.
- 현종호, 『국어고전시가사연구』, 보고사, 1996, 60~63쪽.
- 金連浩, 「「황조가」의 구비문학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10집, 우리어문학회, 1997, 125~149쪽.
- 田寬秀, 「제의적 측면에서 본 〈黃鳥歌〉의 성격」, 『韓國古典詩歌史』(逸民崔詰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편), 집문당, 1997, 205~218쪽.
- 許南春, 「古典詩歌의 呪術性과 祭儀性」, 『慕山學報』 10집, 慕山學會, 1998.2: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月印, 1999, 201~209쪽.
- 현승환, 「黃鳥歌 背景說話의 文化背景的 意味」, 『白鹿論叢』 第1輯, 濟州大, 1999. 2, 95~112쪽.
- 권오영, 「한국고대의 새(鳥)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6, 93~122쪽.
- 허남준, 「黃鳥歌 新考察」, 『韓國詩歌研究』 제5집, 韓國詩歌學會, 1999.8, 5~32쪽.
- 李權宰, 「黃鳥歌 研究」, 『傳統文化研究』 제6집,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1999.12, 37~51쪽.
- 金榮洙, 「黃鳥歌 研究 再考: 樂府詩 ‘黃鳥歌’의 解釋을 援用하여」, 『韓國詩歌研究』 제6집, 韓國詩歌學會, 2000.2, 5~46쪽.
- 金成基, 「黃鳥歌의 戀慕 對象과 創作時點」, 『古詩歌研究』 第8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1.8, 31~53쪽.
- 신연우, 「‘祭儀’의 관점에서 본 琉璃王 黃鳥歌 기사의 이해」, 『韓民族語文學』 제41집, 韓民族語文學會, 2002.12, 83~100쪽.